

GIST, IBS 양자변환연구단 개소식 개최

화학 분야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조직 가동

- 계면화학 분야 세계적 연구자 김유수 단장이 이끄는 IBS 양자변환연구단 본격 출범... GIST 화학과를 기반으로 GIST-IBS-일본 RIKEN 간의 새로운 연구협력 모델 구축
- IBS 노도영 원장, 광주광역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등 참석... “물질의 양자 변환 현상에 의해 발현되는 기능과 물성 창출 통해 지역 경제·산업 혁신에 기여할 것”



▲ GIST가 9월 12일(목) 대학 C동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변환연구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9월 12일(목) 오후 2시 대학 C동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변환연구단(단장 김유수·GIST 화학과 교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IBS 노도영 원장, 광주광역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비롯하여 GIST 이광희 연구부총장, 김상돈 교학부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안진희 화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와 교직원·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이광희 연구부총장의 총장 축하 대독을 시작으로, 이상갑 부시장과 노도영 원장의 축사에 이어 김유수 단장의 연구단 소개와 양자변환연구단을 상징하는 현판 제막으로 마무리되었다.

물질의 표면을 연구하는 계면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김유수 단장은 한국인 최초로 가장 높은 직책인 수석과학자에 오른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리켄)에서 이달 GIST로 자리를 옮겨 화제가 되었다.



▲ GIST가 9월 12일(목) 대학 C동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변환연구단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김 단장은 개소식에서 “GIST와 IBS, 리켄 간의 새로운 연구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물질의 양자 변환 현상에 의해 발현되는 기능과 물성을 창출함으로써 지구 규모의 지속 가능한 사회의 달성과 지역 경제·산업의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이광희 부총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양자변환연구단의 출범이 세계를 최초로 일주한 마젤란 탐험 선단의 1519년 9월 스페인 세비야 출항을 떠올리게 한다”며 “양자변환연구단이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와 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GIST는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도영 원장은 “IBS가 설립되었을 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일본 리켄을 모델로 하였는데 이제 IBS-막스플랑크연구소-리켄 간에 연구자가 옮겨가기도 하는 연구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며 “IBS 연구단의 임무는 ‘새로운 발견(new discovery)’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전 인류를 이롭게 하는 연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IBS 노도영 원장이 양자변환연구단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유수 단장은 “오랜 시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GIST와 IBS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연구조직의 바람직한 문화와 환경 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양자변환연구단 김유수 단장(GIST 화학과 교수)이 양자변환연구단 개소식에서 연구단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을 열고 본격 출범한 IBS 양자변환연구단(Center for Quantum Conversion Research)은 양자 상태 간의 상호작용을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제어하는 혁신적 방법론을 개발하여 에너지 변환 및 물질 변환의 기반이 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물질의 양자 변환 현상에 의해 발현되는 혁신적인 기능과 물성을 창출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구 규모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 해결 방안을 기초과학의 입장에서 제공하고, 대학과의 밀접한 연계 및 지역 경제 및 산업 혁신에 기여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